

佛教新聞

w.cwh.co.kr 차구운향기

분기 2556년 9월 29일 (2012년 / 단기 4345년 8월 8월14일)

nulgyo.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대표전화 (02)730-4488 제2852호

"여러분 던분에 국민들도 편안

이름다운동행 이사장 원장)은 한가위를 및 런다려움품이 없니다 격려했다. 전달식이 집 난 후 충무원장 자수 에 탑승해 "여러분이 있어 어린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는 것"이라며 노고를

목포=신재호 기지



국가 책임 끝까지 묻는다

○ 기획 '1∆·27법난 보상법' 천면 개정 착수

조계족이 10-27만나 비용되사 과 리번 개정자인에 보게 참수했다. & 무원 기획실장 능도스님은 지난 20 일 "국가를 법적 책임의 주세로 명 시하고 배상 규정 시성은 공자로 하 '10-27번난 피해자의 메예리법 등에 과하 번째(번난번)' 개정아는 만나 개정의 단위성을 성둔할 것 이라고 바이다 구가되려야 됐어요 위로 인해 한국불교 전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만큼, 국가가 그 에 한당한 취감을 치르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

조다이 주비하는 개편이오 보사 의 주세를 구세하라고 보상병위를 한층 엄격하게 매긴 점이 특징이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돈에 과하 여름, 돈 여러 작가였어 과 같이 사건발생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10-27법난이 시구보가 시재에 하지만 계획하 '구 - 네트IO웨덴 IZIO웨 IBIQ IO FSIGHA 사실은 약히 알려진 바다(국방부 과

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골 대표됐이 과거시 시간이 '도-18' 에 필정하는 비중으로 다립져야 한 다는 주문이다. 특히 10·27법난의 경우 무고한 불교계를 표적삼아 '전 ANOS. , RYIOL, WARRING OF 귀유린을 자행했다는 전에서 국가

'국가의 법적 책임' 명시 보상의무 배상으로 견신

번의 '유효기가' 없애 지상규명 의지 나타나

이 장물이 다우 마주하다는 시간이 다 국가의 부사의무를 배상으로 경 무엇보다 법난법의 효력기간을 to calorate loss isiniors into 시 민주화운동 관련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내년 6월30일 10-270FLF WHEXT BRIDGES & JULY 원회(법난위)의 활동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법난의 진실이 이대로 묻혀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사회이다 요하기가 비지는 구매성 의 법단의 장악 노라운 위치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진상규명의 조건을 보다 안정적으 근 구추한 소 이는 장정은 지니다.

뚜아 피해자의 병위를 받난 당시 조계중 소속 스님 전체로 대쪽 확대 해, 법단이 스님 개인이 아니라 한국 불교 전체를 상대로 한 테리워을 모 MORES LIGHT SERVEY STUDIES FALLED 했과 수사 구군과 지명수배까지 피 해로 포함했다. 이는 역사교육관 건 립음 위한 궁고보조금 1500억 원이 불교계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을 방 지하기 위하 포성이기도 하다 하루 중단 집행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등 와도고 10-27명단 당시에 개정 문제를 불교계 주요 공약으로 띄우 겠다는 방침이다. 장영섭 기자

81)' 시인 외인자에 지하스니(AIX · 조계중 총무원 총무부장)이 선출 됐다. 법난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회분과회의 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어 새 위원 장에 지하시나요 중서하다 지하시 님은 중단의 추천을 받아 전 사회부 장 해경스님의 후임으로 지난 21일 자로 궁무총리로부터 선위 위원에

위촉된 바 있다. 하면 저의 의명자 얼마시나요 보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 에 의약자을 포함한 의약지 시네 이 장을 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위

원장 불법 해임 파문 이후 불거진 301 491

"저투시장 세계으사 가의 이다"…글제한숙하의 현장

개정 산중총회법 핵심은 "금권-탈법 시비 근접" [집중 문석] 지리산댐 건설 논란의 '핵심' 중소, 그 개선명소 느쓱 수 있어요. ◀소설가 김정빈의 불교인연 이야기

영담스님 위원 사퇴 진상규명 피해 보상

존단차의 지원 당부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하 자 명예정성 시의의의정(번난의용

아유리 제대로 된 지사규명과 비

59

901

10.27 위원장 지현스님 선출

비판하고 하무 대응을 주문했 다 스님은 19페이지에 다하는 자료

조몽조몽 해명 하며 국방부의

법단위원회 지

RICHOL VINE

를 통해 민간위원 규제, 비상대책임 원회의 불법성, 역사교육관 건립 지 체, 지원단장 직위해제, 현역군인 홍 수 요구 등 해안의 원인과 대책을 CARRIED UNIO CERTIS SHOWS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직 위원장이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BROKER

해보상을 위해선 종단 차원의 관심 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 다 스님은 "버나의왕하네 구이야 아닌 변경에서 많이 역인되고 공무 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직위를 기 져야 법난 피해자인 종단에 불이익 이 가지 않은 거"이라며 초모의 관 장급 종무원의 법난위원회 파견 등 총무원의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영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장역섭 기자 tell

'나' 라는 허세 놓으면 온 국민 평등해진다...

진제 종정예하, 박근혜 대선후보에 덕딤

반근해 제누리당 대선후보(ARI) 가 지난 24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진 제 조직에서의 예약하다 이 자리아 는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함께 배석



고 대답했다. 또 "이는 기차하거야 말씀처럼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반으로 온 국민을 부처님으로 여 기고 모시는 자세라면 일등지도자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종정예하는 "오늘 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중오에서 관용으로

보였네서 불안으로 가기에서 미래 로'라는 말을 잘 해줬다"며 "이러하 용심으로 안해서 일등 선진국이 되



듯이 지속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것도 우리가 짚고 가야한다"면서 "과거사에 매여 거기 에만 집작하고 미래사가 파도처럼 오는데 정신을 다 뺏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와 아픔 치유 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국민 행복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단한

이에 있서 반근해 후보는 해운정 사 원통보전에서 신도들을 만나 인 사했다. "중정스님께서 '참 나를 찾 아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을 듣고 구미 모드가 엄마은 차이 나는 건강 함께 정치에서도 참되게 노력하여 참 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 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선의 대중 화 위해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치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 게 희망을 갖고 햄벅시대를 위해 5 대한 바라가면 용용해 다리됐다.

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취병무 보사지시집

의장 선출 논의 10월10일 원로회의

조계종 위로하의(의장 종산스님) 가 이는 10월10일 이용 9시 하구성 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 41차 회의를 엮어 차기 의장단 선출 을 논의한다. 이날 원로회의에선 현 원루회의 의장 중사스님의 위기만급 를 2개위 앞두고 신입 원로의장 및 부의자 서축의 건을 다룬다. 위로의

자 종산스님의 임기는 오는 12월10 일이다 아유리 워근하이 소의위하 가 자체적으로 입안한 중면 개정인 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종현 개 정안엔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주 요소위자의 자격기준에 과한 내용을

장염섭 기자 we

하바리(원) 만해학교!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불교신문사는 미사이쪽 거주지인 케나 카지아도주 음교이 EASE 1004 DISSESS AND DO JUST MINOR AND STOCK ON IN SUBJECT. 으로 게임된 수 있도록 됐지 여러보들이 많은 귀신 부만드립니다. #20009-1000

·기 간:2012년 9월1일 ~ 12월31일 · 國표역:5000만원 1 건립역 : 1억 2000만원

· 본 의:지구촌공성의 중교신문사

한기있일 토를트처럼 만해학교를 흔히게 밝혀주세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 제16회 만해평화대상 수상 상금 5.000만원 전액 케냐 만해학교에 회향!

끊임없이 세간에서 중생을 위해 현신하는 스탠지가 되겠습니다 - XIPRIME 0



하바리(산녕) 마해학교?

거리에 1억 2 000만원 모금 목표액 5,000만원



지구촌공생회는 자비의 두 손으로 교통 받는 들에게 중교, 정치, 문화, 이념을 넘어 보면 실현해가는 국제개립구호 NGO입니다.

후원계좌 : 농첩 100026-55-003657 (사)지구혼공생회 www.goodhands.or.kr

